

# 교회론 제1강

[소망양육 증인됨 과정]



01

## 교회론 제1강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 소개

# 수업목표

History

교회론의  
역사 속  
변천 흐름

Bible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회론 이해

Change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교회론의  
태도를 견지할  
것인지?

# 학문상 교회론의 위치

신학을 구성하는 다양한 학문들



성서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예배설교, 상담,  
윤리, 영성)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 **I . 교회란 무엇인가?**



십자가가 걸려있으면 다 교회일까?



“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곧 교회  
에클레시아  
(ἐκκλησία)

”



## 교회의 세 가지 핵심 이미지



1. 영적 가족공동체
2. 그리스도의 몸
3. 성령의 전



## 교회 치료학이자 건강론으로서의 교회론

교회론은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론이 아니다. 교회론의 정당성은 교회를 치료하고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데 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위로와 격려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더 나은 치료 방식이다. 교회론은 교회를 치료하고 건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이론이다. 교회론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해야 한다.

### 교회론 1강



# 교회 치료학이자 건강론으로서의 교회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사 30: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 15:26).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6:1).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시 147:2-3)

## 교회론 1강





# 교회 치료학이자 건강론으로서의 교회론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사역을 매우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온갖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회복시켜 주었으며,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격과 정체성과 주체성과 사회성을 회복시켰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였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였고, 부활함으로써 온 우주적 회복과 완성을 희망하게 하였다. 이 모든 사역은 단순히 개인에게 그치는 사건이 아니다. 공동체와 온 우주에 미치는 총체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인 개인에 대한 처방과 치료일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한 처방과 치료이다.

## 교회론 1강



## 교회 치료학이자 건강론으로서의 교회론

그러므로 교회론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처럼(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전 16:14),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행하는 치료학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교회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치료학이다.

## 교회론 1강





## 완벽한 교회, 존재할까?

그렇다면 교회의 건강이란 무엇이며, 그 건강이 실제로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가? 건강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 질서와 안녕, 정신적 안정, 영적 건강 등을 의미하는 총체적 개념이다. 온전한(wholeness)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과연 교회는 건강할 수 있을까?

현실 교회 중 건강한 교회는 얼마나 되겠는가,

질병과 잘못과 실패가 없는 온전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한다면, 연약함 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인데 온전한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에서 가능할까?

## 교회론 1강



## 완벽한 교회, 존재할까?

교회의 건강은 교회의 현재의 온전한 상태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할 목표요 과정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온전한 건강을 향하여 가는 도상적 미완성의 존재이지, 완전한 건강과 치료의 상태에 도달한 공동체, 혹은 현실에서 온전한 건강에 도달할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전하라”는 명령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할 과제요 목표이다. 교회는 온전함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진정으로 교회됨의 의미를 발견하고, 목표인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다.

## 교회론 1강





#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 네 가지

그렇다면 건강의 목표인 교회의 온전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니케아공의회 신조에서 그 하나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

니케아 회의에서 정의 내린 결론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네 가지 표지라고 일컬어지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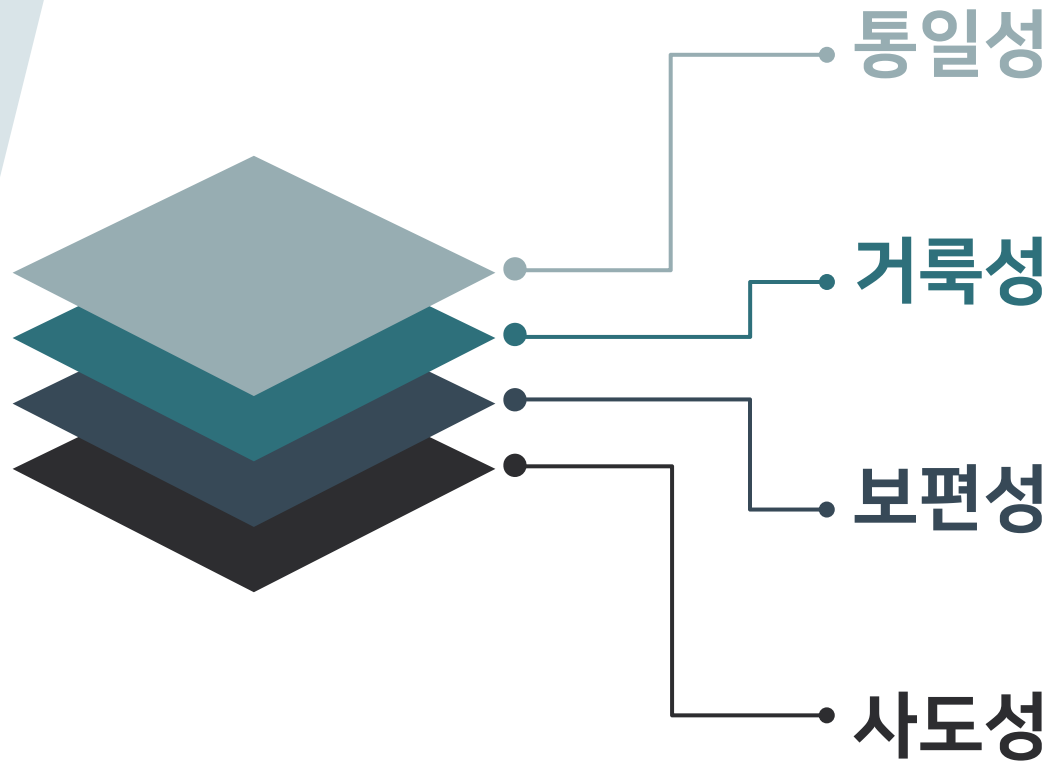
이것은 참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교회가 참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를 판가름하는 특징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온전함을 향한 길”이라고 말하고 싶다. 교회는 현재의 목표이며 미래적 목표인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 교회론 1강





# 교회의 네가지 특성



#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 네 가지

이 네 가지 교회의 온전함과 건강은 바로 교회의 현실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개혁하는 데서 시작한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실현하며 성령의전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교회(통일성).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교회(거룩성).

창조주이시며 화해자이시며 치유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차별이 없는 보편적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보편성).

그리스도의 삶과 정신을 따랐던 사도들의 삶과 가르침을 계승해야 하는 사도적 교회(사도성).

오늘날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며 어떤 상태인가를 깊이 반성하는 데서 교회의 온전함은 시작한다.

## 교회론 1강



## 교회론 1강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서있는 교회론(엡2:20)>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Credo...sanctam Ecclesiam catholicam) 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Credo ... unam, sanctam, catholicam et apostolicam Ecclesiam)라고 고백





## 교회론 1강

### 교회론,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교회>

교회론은 <교회믿음론>이다.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이론이라는 뜻이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듯, 교회를 예배할 수는 없다. 교회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며 주님도 아니다.



## 교회론 1강

### 교회론,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교회>

그렇다면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존재함을 믿고 고백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보이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고백한다는 말이다. 나아가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공동체임을 믿고 고백한다는 말이다.





## 교회론 1강

교회론,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교회>

그러므로 교회론은, 교회에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담아내는 학문이다.



## 교회론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들어있다

교회의 건강과 치료는 교회의 노력이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치유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

목표를 향하는 순례의 과정 마저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 교회론 1강





## 교회 사랑학으로서의 교회론

### 교회론은 <교회 사랑학>이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교회관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린도서의 구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전 1:1-4)

## 교회론 1강



## 교회 사랑학으로서의 교회론

그는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다. 도덕적 타락과 분열, 성령의 은사 문제로 인한 논쟁, 성만찬 논쟁, 부활논쟁 등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찬 교회였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까지 표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었다.

## 교회론 1강





## 교회론 1강

### 교회 사랑학으로서의 교회론

빌립보교회라고 문제가 없었겠는가. 그럼에도 그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의 마음으로 교회를 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교회와 분리시켜 객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즉 우리라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다.



## 교회론 1강

### 교회 사랑학으로서의 교회론

성경은 교회를 지칭하면서 부름받은자, 선택된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자,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신부 등의 표현들을 사용하였다. 그 명칭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인 칭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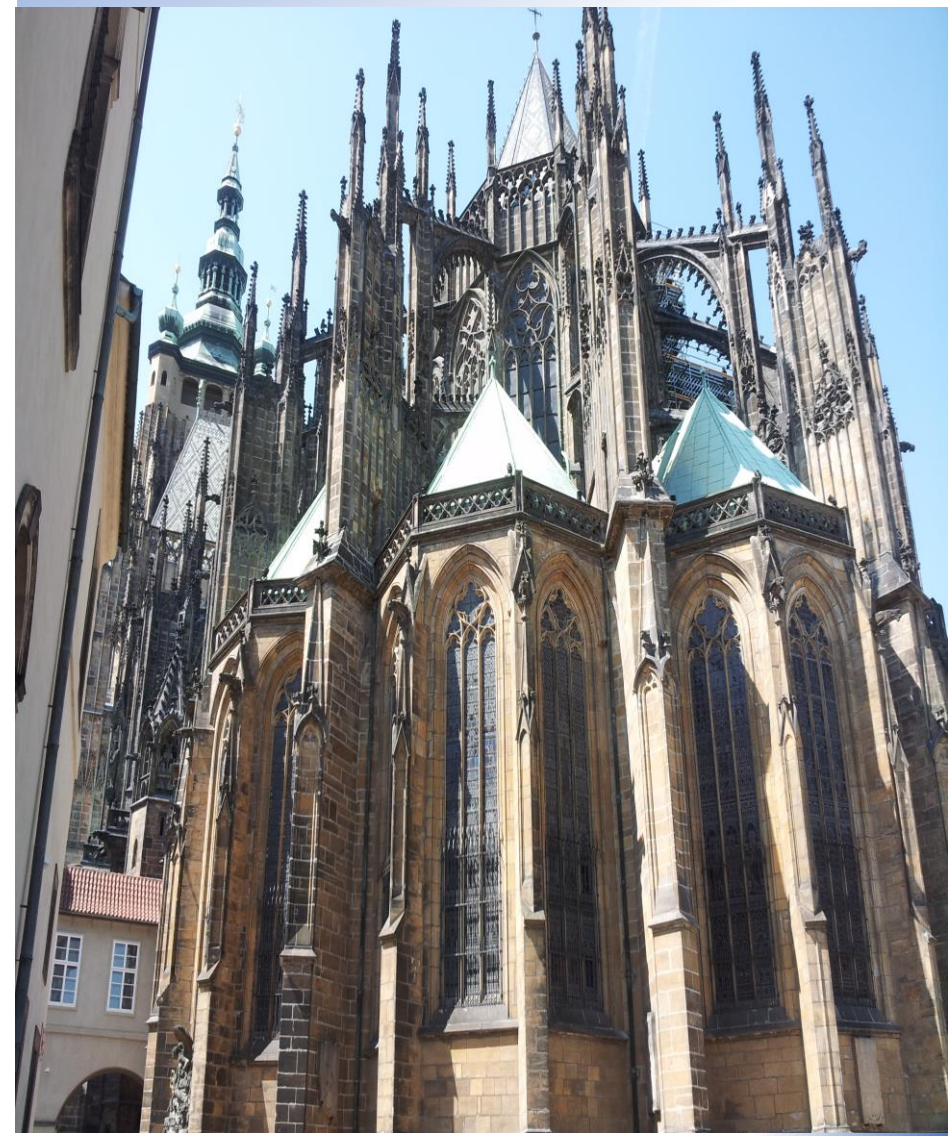
## 교회 사랑학으로서의 교회론

위의 긍정적인 호칭들은 누구에게 부여되었는가? 그 명칭들은 대부분 가시적이며 지역에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부정적 모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위대한 교회개혁자이면서 개혁자인 바울은 교회의 부정적 모습을 직시하면서도 이 현실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 부름 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연약하고 타락한 인간 군상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약한 교회도 교회다. 그 가시적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이며 부름 받은 자이며 선택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깨지기 쉽고, 쉽게 분열하고 상처주고 상처받는 우리가 바로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전 3:9).

## 교회론 1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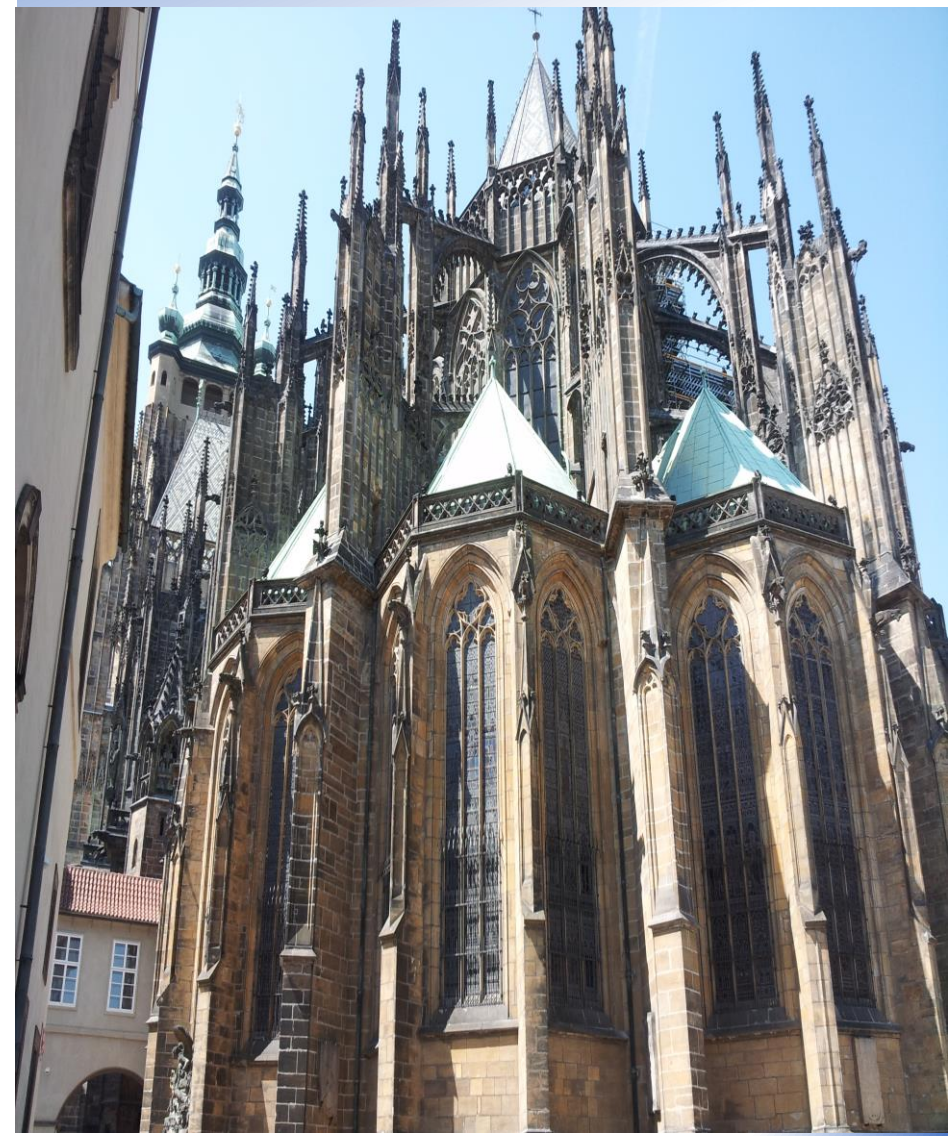


## 교회 사랑학으로서의 교회론

여기서 칼뱅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그의 목소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할 목소리다.

“자기는 완전히 성결하다는 그릇된 신념으로, 이미 낙원의 천사라도 된 양 인간의 죄성이 보이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보다, 의에 대한 그릇된 열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 복음을 듣고도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즉시 거기에는 교회가 없다고 단정한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불평이며, 이 극도로 비참한 시대에 이런 불평이 생길 원인을 우리 편에서 너무도 많이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의 저주받을 태만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 교회론 1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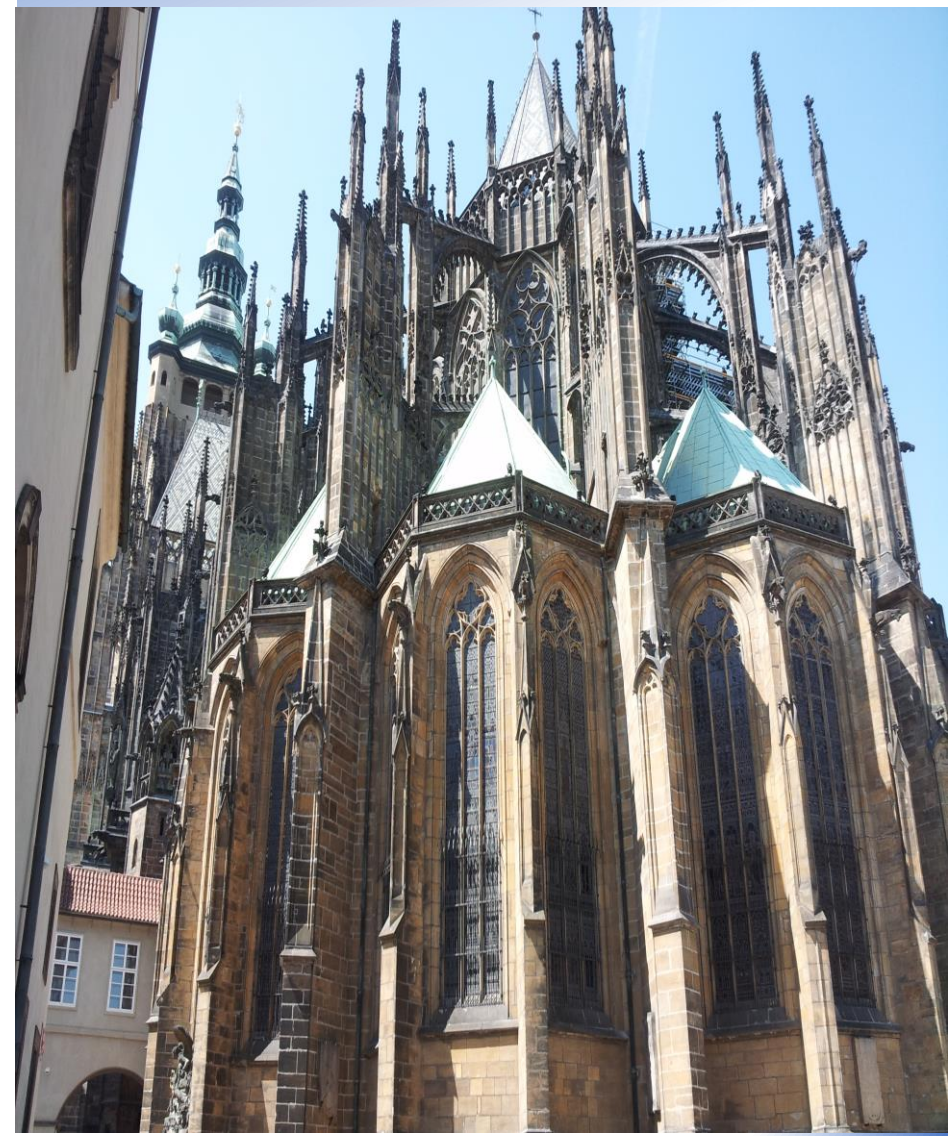




## 교회 사랑학으로서의 교회론

그러나 여기서도 사도의 의견으로 그들에게 대답할까 한다. 고린도 신자들 가운데는 타락한 사람이 적지 않았으며, 사실 거의 회중 전체가 감염되었다. 한 가지 죄가 아니라 아주 많았으며, 그것도 경미한 과실 정도가 아닌 무서운 비행이었다. 도덕적 방면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방면에까지 부패가 있었다. 성령의 도구요 그의 증거에 의해서 교회의 존망이 결정될 저 거룩한 사도 바울은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그는 이런 교회에서는 손을 떼라고 하는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들을 몰아내는가? 최종적인 저주의 벼락으로 그들을 때려 부수는가? 그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공동체라고 인정하며 선언한다. “(Calvin)

## 교회론 1강





## 교회 사랑학으로서의 교회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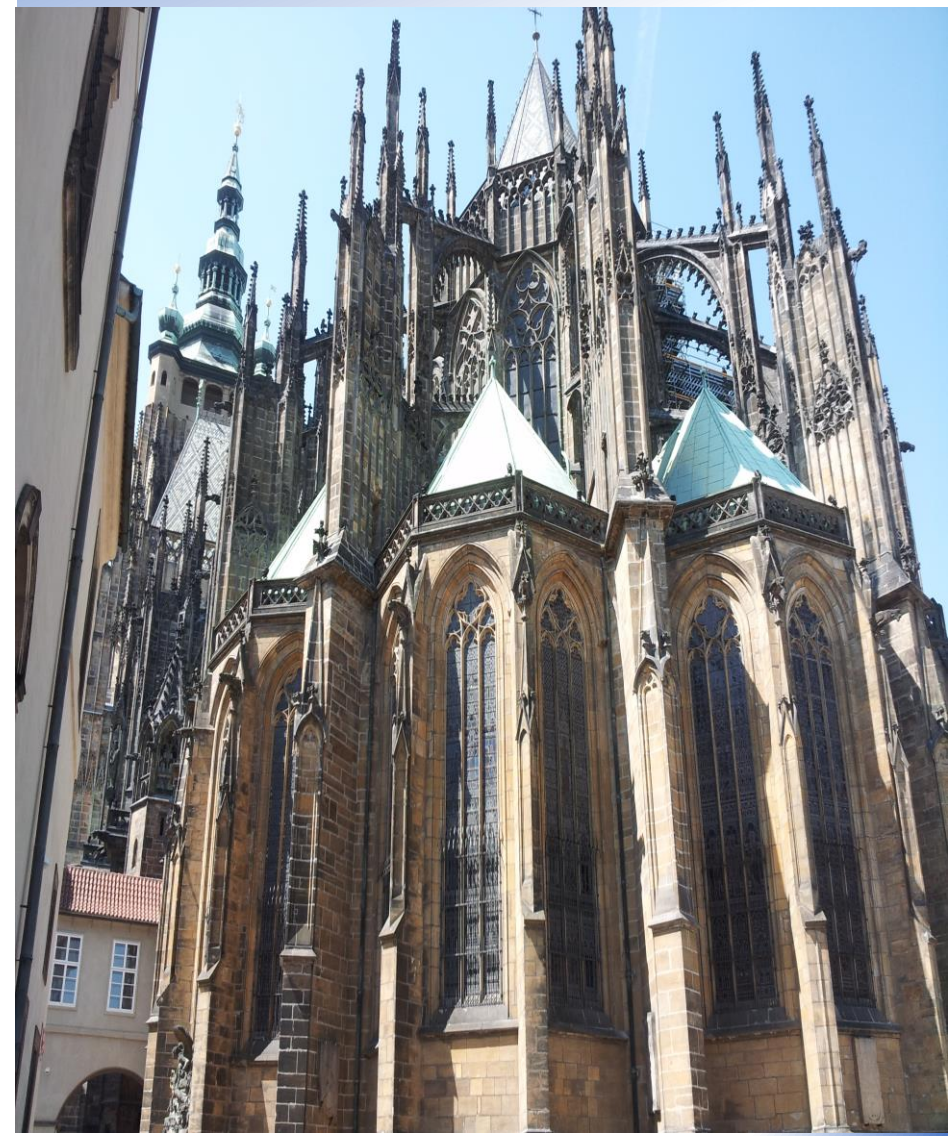
교회는 냉소와 분노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흔히 지적하듯, 오늘의 사회는 분노하는 사회다. 정의로 포장한 분노와 냉소가 난무한다. 그리고 정의를 독점하고 분노와 냉소를 의분인양 합리화한다. 온갖 선과 거룩을 독점한다. 그래서 배제와 배타를 거룩의 실현인 양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말이다.

## 교회론 1강



“ 우리는 종종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주례사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씀은 파벌의 문제로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것은 또한 오늘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한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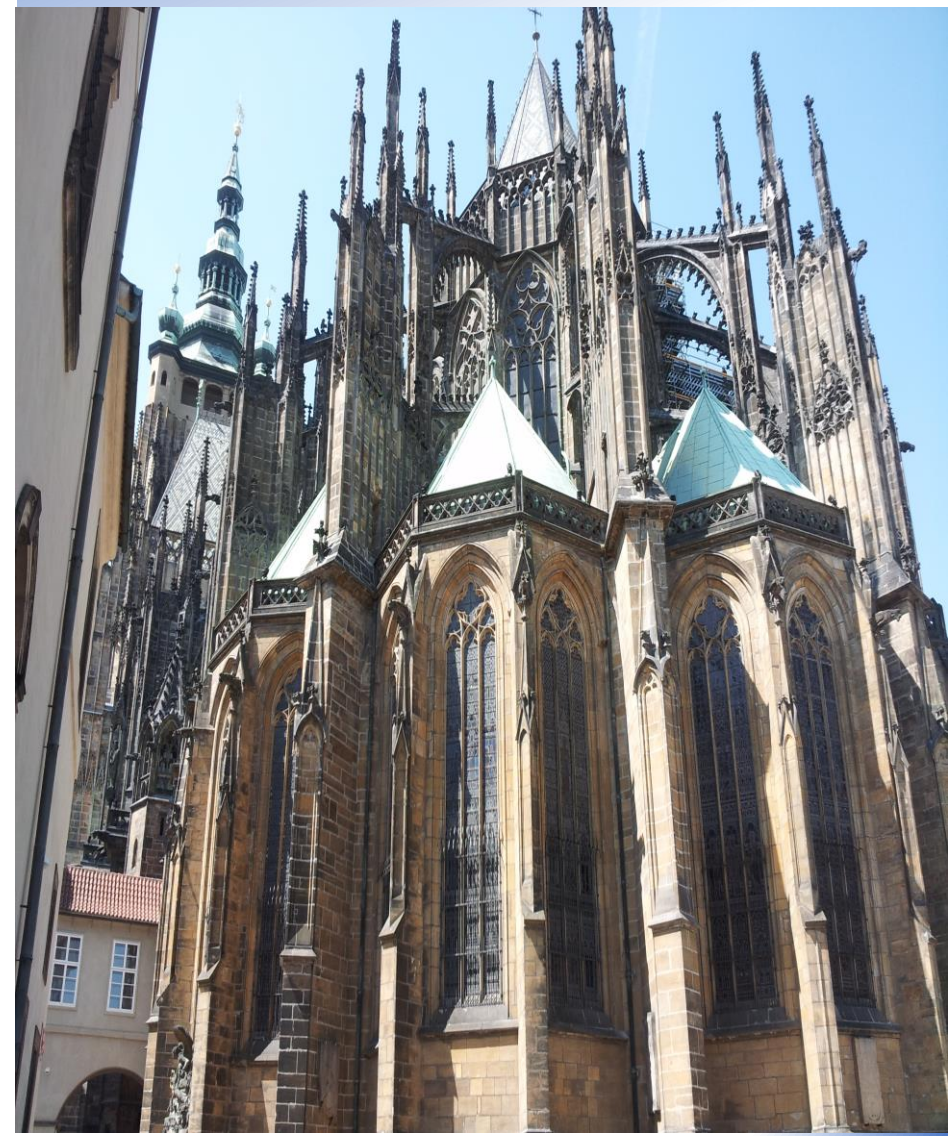




## 교회 사랑학으로서의 교회론

우리에게는 교회를 사랑할 책임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운명이다. 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것이니 말이다. 교회가 거룩한 무리인 것은 교회 자체에 있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다. 교회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지 교회자체에 있지 않다. 예수께서도 교회를 반석위에 세우겠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베드로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내 교회”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교회에 대한 오해와 냉소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 교회론 1강





# I. 교회론의 성격



## 교회론 1강





### 교회를 변증하는 학문으로서의 교회론

교회론은 <교회변증학>이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는 많은 위험과 위협에 둘러 싸여 있다. 그 중 하나가 무신론의 도전이다. 과거의 무신론자들과는 달리 최근 무신론자들은 매우 공격적이다. 무신론적 과학이 오늘날 계속적으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생물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천문학, 나아가서는 정치학, 사회학, 철학,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교회론 1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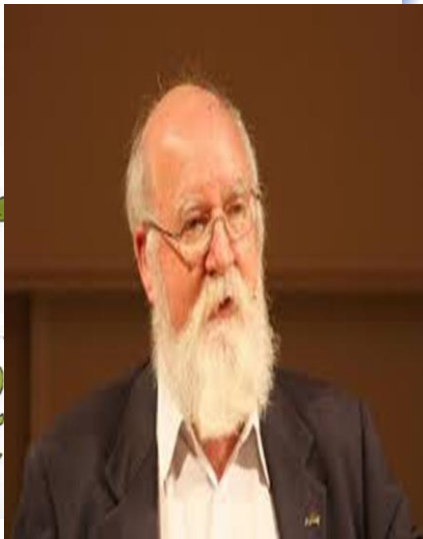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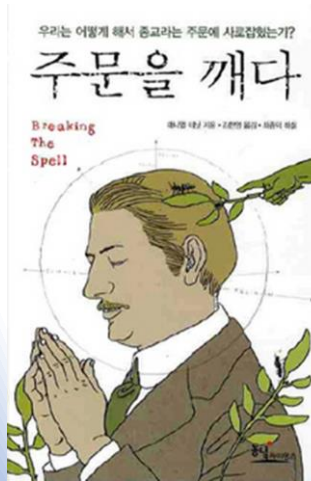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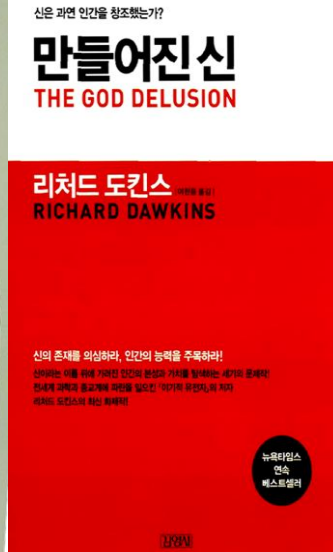
교회론, 교회를 변증하는 학문

신무신론자들과 그들의 주장 및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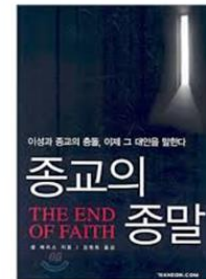
# 교회론, 교회를 변증하는 학문



크리스토퍼 히친스(Christopher Hitchens)



샘 해리스(sam Harris)



## 교회론 1강





## 교회론 1강

### 교회론, 교회를 변증하는 학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가 참인 것을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는가”하는 시급한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다.



## 교회론 1강

### 교회론, 교회를 변증하는 학문

첫째, 기독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독교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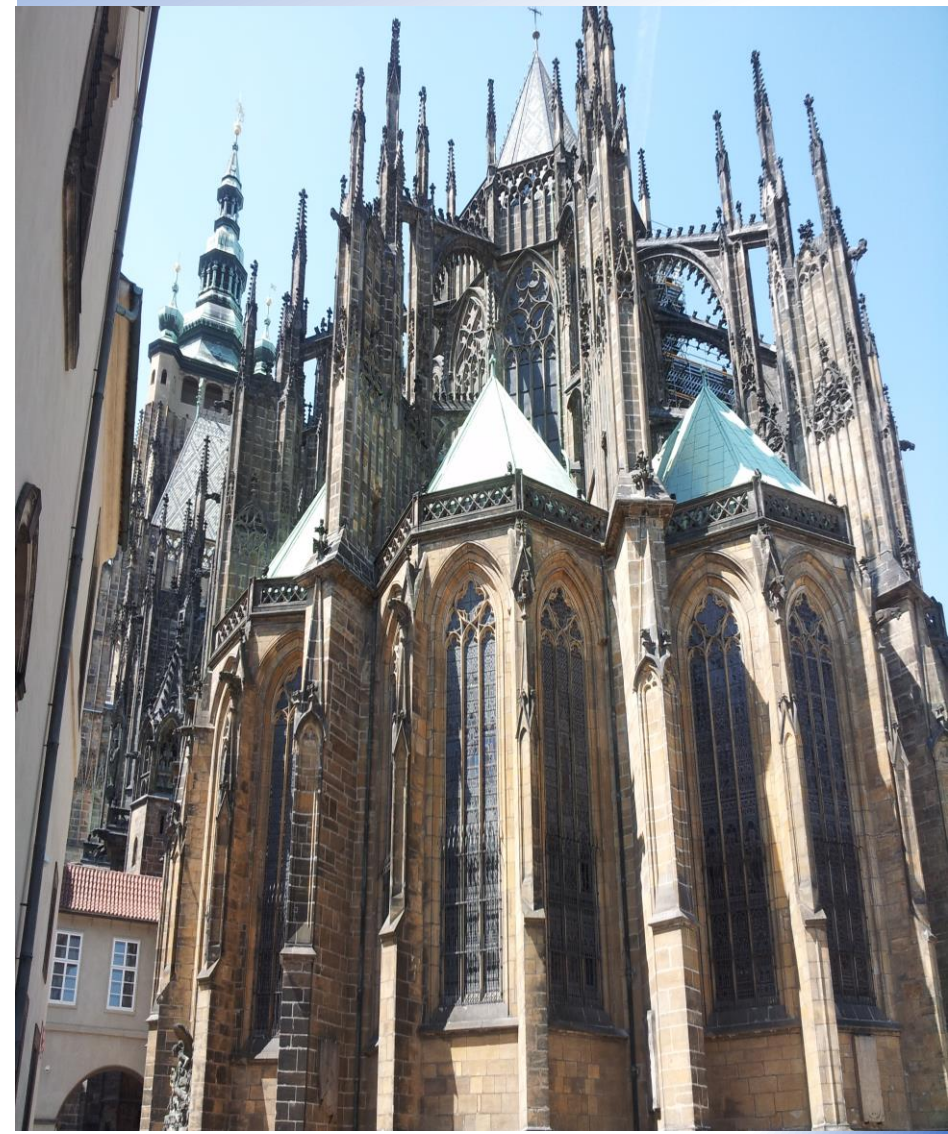




## 교회론, 교회를 변증하는 학문

둘째, 기독교는 결코 이성을 적대시하는 종교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무조건 믿으라고 말한다면 무신론에 정통한 자들에게 대응할 수 없다. 믿음을 맹신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무식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은 무신론자들이나 반기독교적인 편에서 덧씌운 왜곡된 이미지일 뿐이다. 우리는 이성 자체를 우상시 하지 않는다면, 교회나 기독교 역시 이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과학은 이성, 신앙은 비이성적이라는 등식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 교회론 1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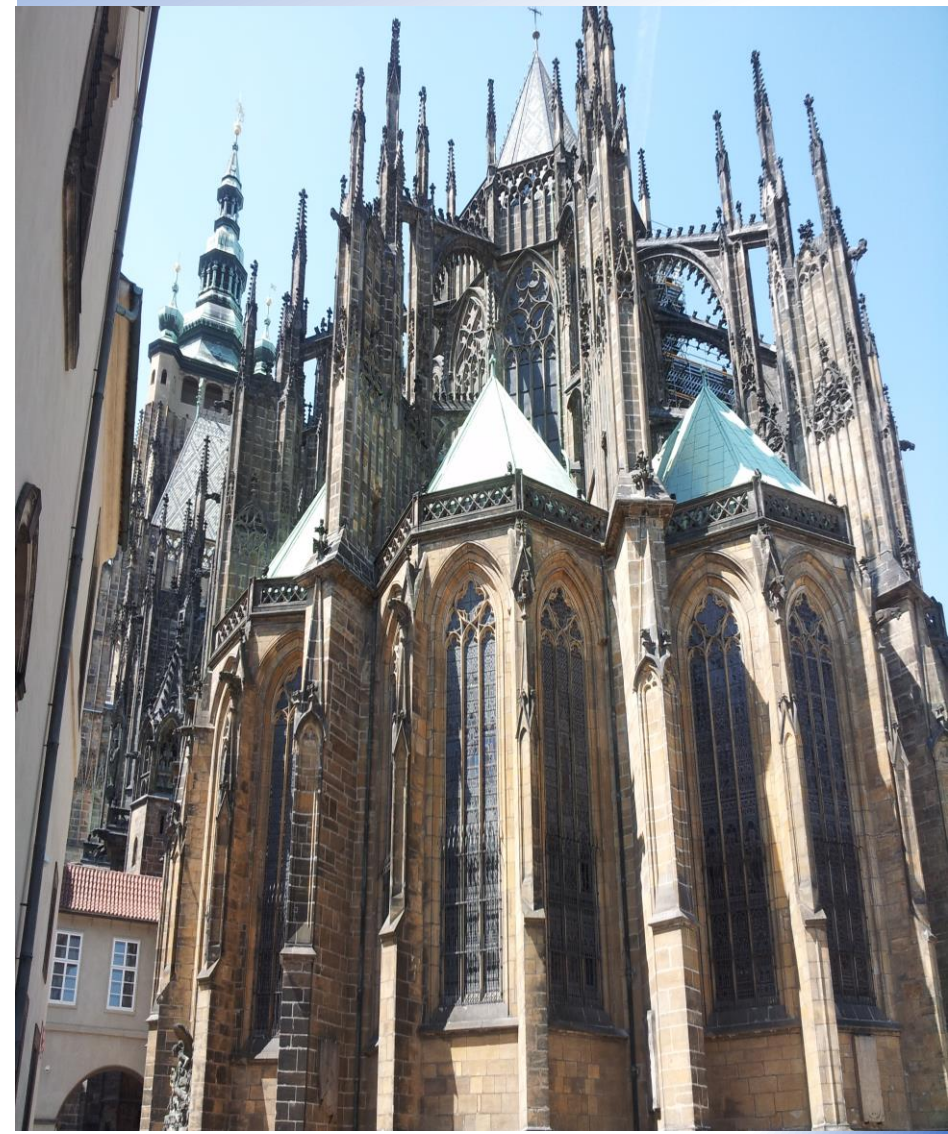




## 교회론, 교회를 변증하는 학문

셋째,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공부와 학문적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효과적인 접촉점을 발견해야 한다. 사도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방식으로 그리스 사람에게에는 그리스 철학을 이용해서, 로마인들에게는 로마법을 사용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에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변증했듯이 말이다.

## 교회론 1강



## 교회론, 교회를 변증하는 학문

넷째, 그렇다고 해서 이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리는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변증의 최종목표이다.

## 교회론 1강





## 교회론, 교회를 변증하는 학문

다섯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변호해야 한다. 교회는 사실상 인간의 제도이므로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와 복음, 기독교와 하나님의 말씀, 교회와 진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적으로 구분하지만 무신론자들은 구분하지 못한다. 구분하려고도 않는다. 그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하는 것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생각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증적 관점으로 보면 교회를 변호하는 것은 곧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며, 복음을 수호하려면 곧 교회를 수호해야 하는 것과 같다.

## 교회론 1강



## 교회론, 교회를 변증하는 학문

마지막,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실천적 신 존재증명 방법이라고 한다. 엄격히 따져보면 무신론자들은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에 상처받아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거룩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변증의 목적도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이 오늘날 여기에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증명하시고자 하는 분이다. 그런데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증명하시고자 한다. 그는 인류의 죄의 고난 앞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역사의 질곡으로부터 한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으며, 많은 선지자들과 그에게 붙들린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셨다.

## 교회론 1강





# 교회론의 과제

1. 교회의 자기정체성 수립을 위한 과제.
2. 교회 섬김, 교회봉사, 교회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대안제시의 과제
3. 교회를 치료해야 할 과제, 교회를 변호해야 할 과제
4. 교회의 본질적 사역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신학을 정립하고 교회를 돕는 과제.
5. 문화의 창조적 수용 및 변혁적 과제.
6. 오늘의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
7. 미래 대안적 과제
8. 교회의 성장과 성숙, 건강을 위한 컨설팅적 과제.

## 교회론 1강



# 교회론의 과제

첫째는 교회의 자기정체성 수립을 위한 과제다. 교회가 교회에 대해 논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작업이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론은 성경과 신학전통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수립하고, 그것이 현장에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회론 1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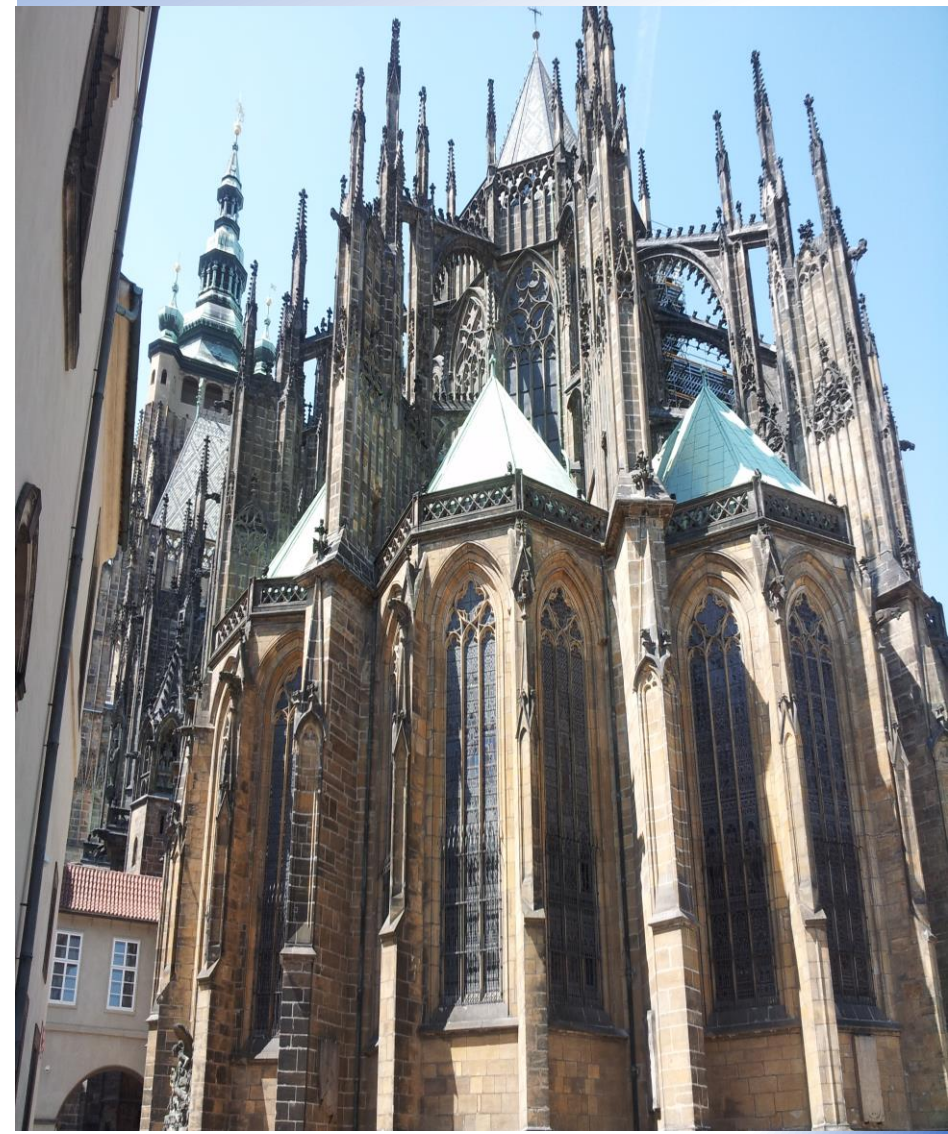




## 교회론의 과제

둘째, 교회론은 교회 섬김, 교회봉사, 교회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대안제시의 과제를 갖는다.

## 교회론 1강



## 교회론의 과제

셋째, 교회론은 교회를 치료해야 할 과제, 교회를 변호해야 할 과제를 갖는다.

## 교회론 1강





## 교회론의 과제

넷째, 예배, 선교, 교육 등과 같은 교회의 본질적 사역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신학을 정립하고 교회를 돕는 과제다.

## 교회론 1강



## 교회론의 과제

다섯째, 문화의 창조적 수용 및 변혁적 과제다. 오늘날의 문화, 특히 인터넷 문화, 디지털문화, 소셜 네트워크 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이것들을 벗어나고 살아갈 수는 없다. 이것들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매우 유용한 선교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화의 타락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는 변혁과 구속의 대상이다.

## 교회론 1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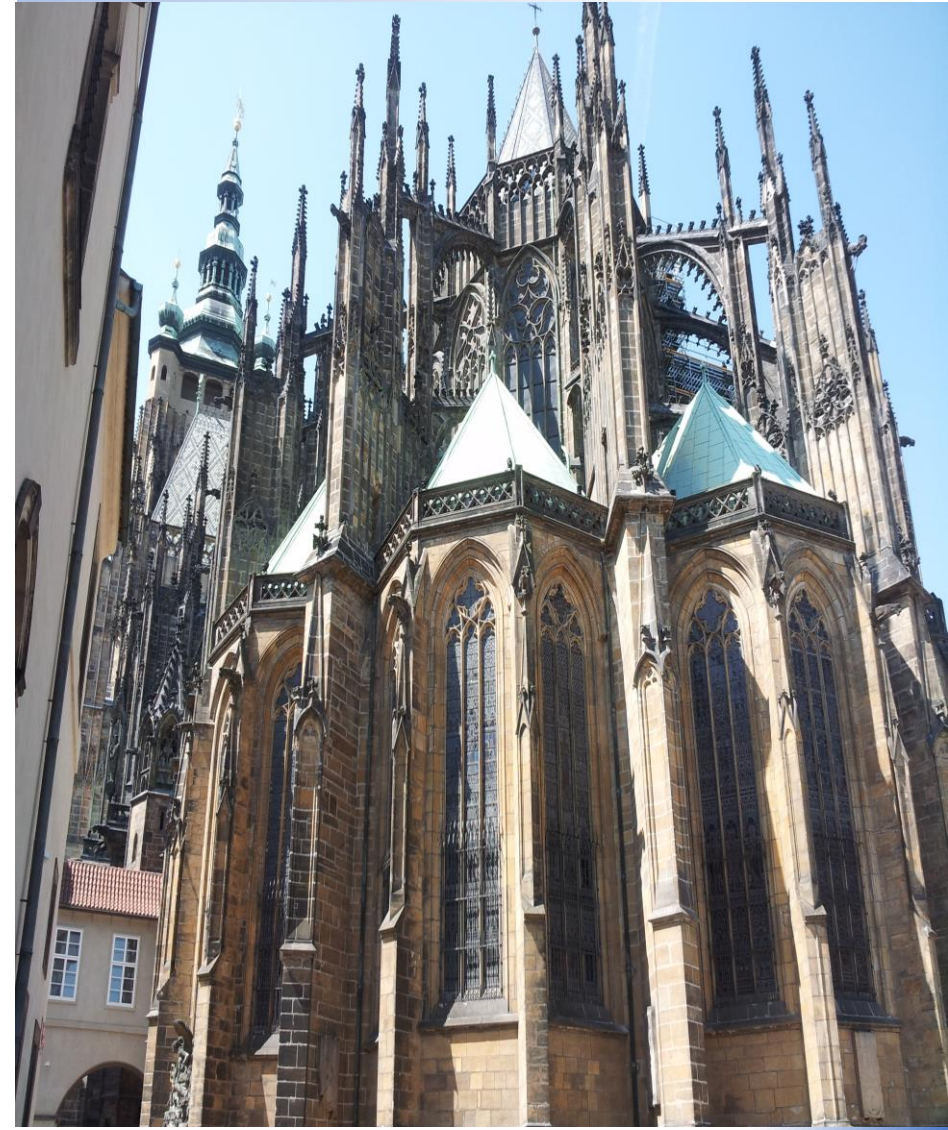
# 교회론의 과제

여섯째, 교회론의 과제는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를 갖는다. 오늘 교회를 둘러싼 문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환경문제, 평화, 통일문제, 생명문제, 경제적, 문화적 양극화의 문제, 인권과 차별과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교회와 신학은 관심을 갖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 중요하다.

위의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실천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담당해야 할 기본적 기능과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교회론 1강



## 교회론의 과제

일곱째, 미래 대안적 과제다. 교회론은 미래 사회의 변화와 트렌드에 민감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론은 교회미래학이기도 하다.

## 교회론 1강





# 교회론의 과제

여덟째, 교회론이 가져야 할 중요한 기능과 과제는 컨설팅적 과제다. 모든 기관과 단체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교회론은 단지 이론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회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오늘의 현실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교회개혁이나 방향, 다음세대의 교회에 대한 인식 등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컨설팅적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 교회론 1강





# Homework

1. 내가 생각하는 교회란? 한 문장으로 정의해봅시다.
2. 교회의 친숙한 이미지 3가지를 암기해 보고 나는 어떤 이미지가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3. 교회의 특징 4가지(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를 암기해보고, 4가지 특징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실천합시다.